

체험 · 교육으로 무성서원 우수성 알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읍 무성서원, 관광객 · 일반인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정읍시는 무성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9월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관광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차 시음과 서예 체험을 통해 무성서원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차향과 목향’, 국내 세계유산 유적지를 탐방하며 유산의 의미를 되새기는 ‘세계유산 토틀보기’,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동양고전 인문학을 학습하는 ‘동양고전인문학당’이 있다. ‘차향과 목향’은 무성서원 야외에서 진행돼 가족 단위 참여자나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서예와 다도 체험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를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평일에 진행된 ‘동양고전인문학당’에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유교경전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최치원 사상과 무성서원의



정읍시는 무성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하고 있다.

배향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며 깊이 있는 강의를 제공했다. 이학수 시장은 “무성서원을 활용한 이번 프로그램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무성서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 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난 20일 소회의실에서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 사업의 공동 추진과 교류 및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1일 전당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APCC)는 한인 1세대로 워싱턴주 한인미술인 협회 회장 출신인 서인석 이사장이 1996년 창립해 한국은 물론 아시아권 태평양 연안 국가 출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전통과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 공헌해왔다.



APCC는 현재 아태지역 47개국 전통 문화와 예술 · 음식 · 언어 등을 교육하는 미국 워싱턴

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시아 태평양 전통문화 교류와 세계화를 위한 공동 노력 아시아 태평양 전통문화 행사, 전시회 등 공동 홍보 △양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 제공 및 활용, 시설 사용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가 가진 문화와 매력을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당과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가 가진 문화적 자원을 토대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유아 놀이형 국악체험 ‘덩덕쿵 국악놀이터’ 성료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오후 1시,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유아 대상 놀이형 국악체험 ‘덩덕쿵 국악놀이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동요 ‘산중호걸’을 바탕으로 국악기를 활용한 체험형 공연으로 기획되어, 3세에서 5세 유아들이 전통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해금, 아쟁, 2현 가야금 등 전통 악기를 풍물 캐릭터와 결합해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내며 큰 호응을 얻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연에는 남원 관내 어린이집 유아와 지도 교사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교사들은 “아이들이 국악에 이렇게 즐겁게 몰입할 수 있을지 몰랐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체험은 유아들이 놀이처럼 전통음악을 배우고 익히는 소중한 기회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감수성을 심어주는 시간이었다. 공연 담당자는 “유아들이 국악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더 가



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전통예술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다양한 세대가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고 말했다. /남원=김기주 기자

“하얀양옥집서 문화누리카드 사용하세요”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사용 활성화 위해 22~24일 ‘문화의 길’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2~24일 하얀양옥집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문화누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14개 시·군 및 재단이 공동 주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전주 한옥마을에 특별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카드 이용자는 물론 일반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도내 예술작가가 마련한 △문화상품 플라마켓 △매듭팔찌 · 카드지갑 만들기 문화체험 △재즈 · 현악 하얀양옥집 테라스 버스킹 △관람객 설문조사 이벤트 등이 있다. 재단 관계자는 “도민과 관광객이 문화누리카드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행사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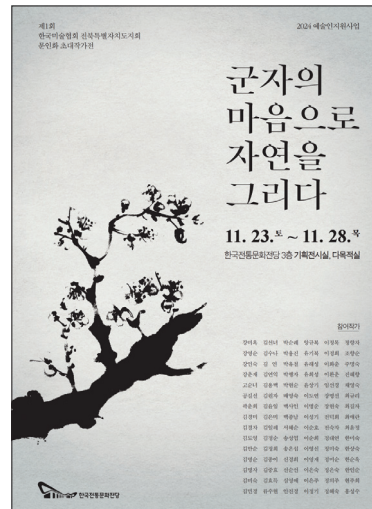


유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ct.or.kr)과 교육문화팀(063-230-745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예술인지원사업 다섯 번째 기획전시

한국전통문화전당, 23~28일 ‘군자의 마음으로 자연을 그리다’ 주제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3~28일 3층 기획전시실에서 예술인지원사업의 다섯 번째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자의 마음으로 자연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 전시는 한국미술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이하 전북미협)에서 특별히 개최하는 첫 번째 문인화 초대작가전으로, 수년간 배출된 문인화 작가들의 열정과 노력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다. 이번 전시에는 90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홍매 △자연 △복단 △심오축 △묵죽 △삼 △해바라기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사군자를 포함한 화목들에 담긴 자연의 묘미를 수묵의 농담과 필묵의 의취를 강조해 자유롭게 그려낸 작품들을 통해 작가 개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한국미술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문인화분과 정의주 초대작가 회장은 “문인화는 작가의 사상과 철학을 반영하는 품격 높은 예술”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문인이 이어져 온 전통과 고유의 독창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도영 원장은 “변혁적 창작 시도로 문인화의 영역을 넓혀 온 훌륭한 문인화가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각고면려’의 산물로 그려지는 문인화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번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를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